

연중 제15주일

숨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기도서 P. 392 C해
 제1독서(신 명 30, 10-14)
 제2독서(골 로 1, 15-20)
 복 음(루 까 10, 25-27)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감 론



영생 얻는 길

강 덕 행 신부

나는 지난 화요일에 고혈압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박베드로 할아버지의 장례미사를 드렸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애통해 하고 통곡하였다. 입관시에는 시신을 안고 "아버지, 같이 살아" 하고 울었고, 출관시에는 "아버지, 가지 말아" 하면서 서럽게 울었다. 이처럼 인간은 항상 같이 살고 싶어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 질서에 있는 본 마음이고 사랑이며 인생의 목적이다.

오늘 복음엔 인생의 궁극 목적인 영생과 영생을 얻는 방법이 뚜렷이 나와 있다. 율법만을 준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는 율법 교사가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루가 10: 25) 하고 물었다. 주님은 "네 마음, 네 목숨, 네 힘, 네 생각을 다해 주님이신 네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루가 10: 27)고 대답하셨다.

영생을 얻는 길인 하느님과 인간 사랑에 대해 몇가지를 생각해 보자.

1. 사랑은 율법의 완성

① 사랑은 법의 행동범 아니라 그 밑을 들추어 그 동기를 알아본다. (마태오 5: 21~48)

② 사랑은 법의 사이에 들어가 우리 행위의 모든 관제의 넓은 범위를 살펴본다. 법은 필연적으로 특수하여 틈이 생긴다. 탐비들은 법을 613조로 나누었지만, 법에 인용되지 않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생겼다. "법이란 임시 변통으로 어떤 사건에 매강 맞추는 것이다. 오직 참사랑만이 갖가지 요건에 맞도록 다룰 수 있다."

③ 사랑은 법을 넘어선다. 법만을 지키는 자는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는 하느님을 섬기는 자이다.

2. 사랑의 세가지 방향

① 하느님에게서 우리에게로 ② 우리에게서 하느님에게로 ③ 우리들 사이로 움직인다. 우리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3.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면 그리스도 교인으로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도 알 것이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랑한다. 자기 사랑은 자기를 값있게 만들려고 한다. 감정의 변화는 나날이 다르나 자기 사랑은 꾸준하다. 자기의 안전과 선을 구하는 것은 누구나 비슷할 것이다.

4. 사랑의 남비

이웃 사랑이란 책임을 행하는 것처럼 타산적이지 않다. 미련하다 할만큼 남비적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잘 드러나 있다. "원수를 사랑하라. 질투까지 초월라. 10리를 가라" 등이다. 사마리아인은 의무를 훨씬 초과했다. 여관비까지 주고 더 들면 더 준다. 약속까지 했다. 그는 의무란 생각은 없었다. 우리도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때 의무란 생각없이 거저하고 싶어한다. 사마리아인은 그런 심정으로 이웃을 도운 것이다.

그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적이고 타산적이고 의무적인 것을 훨씬 넘어서 하느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해야 할 것이다. <순창천주교회 주임신부>



일본의 특파원과 칼럼니스트

최근, 서울에 나와 있는 일본의 신문이나 통신의 지국이 폐쇄되는 일이 있었다. 밖에서 보는 나라안 소식을 접할 길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잘못 썼는지는 몰라도, 그러한 조치를 내리기까지의 당국자도 고심이 컸을 것이다. 일본 매스컴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실로 복잡하다. 기사(記事)의 문제점도 그렇고 방송 뉴우스나 텔레비전의 프로그램도 그렇다. 그런가하면 어떤 일본인의 글은 한국의 모든 신문에 그 내용이 소개되기도 한다. 어떤 모습이 참인가?

말세를 일으키기도 하는 특파원과, 그렇지 아니하는 칼럼니스트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자. (국어사전에서)

특파원(特派員)... 해외의 뉴우스를 취재하기 위해 외국에 파견되어 있는 기자(記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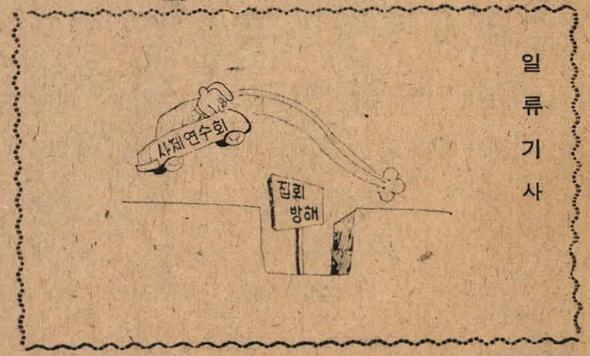
칼럼니스트(Columnist)... 신문의 특별 기고란의 편집자 또는 그 특별 기고자.

김대중(洗禮名: 토마스)씨에 관련된 사건이 신문의 한 페이지를 넘겨 장식되기 몇일전, 일본의 칼럼니스트 시바타씨의 글이 우리나라의 모든 신문에 실렸다. 우리 신문 편집자의 안내글을 보면, 시바타씨는 한국과 중공문제에 정통한 일본 산케이 신문의 칼럼니스트이다. 또한 그는 지난 1월과 2월 서울에와서 취재활동을 벌였다 한다. 그는 그전에도 특파원으로 한국에 머물기도한 한국 문제의 전문가인지라, 우리 기자들도 알아내지 못했던 많은 내용을 써냈다.

그간 우리 신문들이 다루어 써냈던 3K(김종필·김영삼·김대중)의 모습, 어느 월간잡지가 여러 페이지를 할애해서 다루었던 그들의 모습과 오늘의 그것이 주는 격세지감에 쓴웃음이 날 뿐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숲과 더불어 살아도 숲을 제대로 모르는 이가 수두룩한가하면, 잠깐 스쳐 지나기만해도 잘 알아내는 천재(?)는 따로 있는 모양이다.

숨 정이 산책





재 로마(Roma) 성직자·수도자가 드리는 글

존경하옵는 공회 대주교님, 교구내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교형 자매 여러분!

현재 로마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희들 한국 성직자 수도자 일동은, 교구의 일간지와 외신들이 연일 특종기사로 다루고 있는 이른바 “광주사태”에 접하면서 커다란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 여건, 그리고 경제 사회적인 여러가지 난관들은 우리 민족 전체가 한 마음으로 슬기를 모아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하고도 심각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6일 사건 이후, 과도 정권을 담당해 온 정부 당국자들까지도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국민여론이 집약된 새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의 바탕위에서 자유민주 국가를 건설하는 것만이, 궁지를 느끼며 민족적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국민적 합의”임을 수차례 걸쳐 천명하고 공적으로 확인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기대와 희망을 걸어 왔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광주사태는 유언비어에 자극된 순진한 광주 시민들의 감정적 반응이었다든가, 지역감정이 유발시킨 지역적인 사건으로 보기에 너무나 심각하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광주 시민들의 외침이 바로 전국민의 여론과 열망을 대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당국은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세로 대처함으로써, 이 불행한 사건을 민족사의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촉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저희들의 기본 입장을 밝히면서, 그 엄청난 비극의 현장에서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시련과 고통과 상처를 같이 받아오신 존경하옵는 대주교님, 교구내 성직자 수도자, 교형 자매 여러분 그리고 용기있는 애국 시민들에게서 말로써 다 표현할 수 없는 형제애를 느끼며, 저희들도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 이 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오히려 저희들의 마음을 조국에 더 가깝게 밀착시키고 더 깊은 연대의식을 느끼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단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미사와 기도중 우리나라와 특히 광주 시민들을 위해 하느님께 매달려 빌고 있습니다.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어, 주께서 생명을 걸고 외치신 그 복음정신이 우리나라에서도 활짝 꽃피도록, 그리고 진리와 정의를 외치다 죽어간 우리 동포들의 고귀한 피가 헛되지 않고 바로 그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주교님과 모든 애국 시민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 시민들의 의로운 외침이 주님의 은총으로 실현되기를 갈망하며 드리는 저희들의 이 가난한 마음을 따뜻한 형제애의 포서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신 우리 형제들의 영혼이 주님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980년 6월 10일

재 로마 성직자 수도자 일동 드림

□ 교우여러분의 가정에 소량도 신속 배달하겠습니다

한 미 주 유 소

전화 ② 5669 번

주 최 남 수(아벨로니오)

전주시 효자동 1가 283번지

□ 생화·각종 화분·신부부케 전문·제대장식
유명강사 직접지도 꽃꽂이 회화모집

◇ 교우 여러분께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2-2628

법 띠또(떡배)·이 마리아

□ 교구 소식

「신부 수녀 성서신학 세미나
대 성황리에 마쳐…」

본 교구내 사제 및 수도자들의 자실향상과 신앙의 지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매년 마련되는 성서신학 세미나가 금년에도 지난 7일~9일까지 가톨릭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개최여부 때문에 처음부터 당국과 서로의 긴장이 고조되고 엇갈린 의견속에서 어렵게 준비된 이번 세미나는 <성서와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는 주제아래 이 시대의 어려움과 고통의 등짐을 위해 복음정신에 입각한 내적해신과 함께 전사제단의 각성분발을 기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특히 참여의 폭을 넓혀 본 교구 사제외에도 서울과 부산을 비롯하여 전국 각 교구에서 고루 참여, 성직자 135명, 수도자 96명이 모여 대 성황을 이뤘다.

박상태(가톨릭대학 성서신학 교수) 신부와 서인석(서강대 신학연구소 성서신학 교수) 신부의 열띤 강의에 이어, 그룹별로 현 시국에 대한 토론과 연구발표 및 교회의 나갈 길에 대한 의견 교환등이 연일 밤늦도록 진지하게 진행되었고, 특히 광주사태 현장에서 오신 윤공희 대주교님을 비롯하여 광주교구 20여분의 신부님들의 사태진상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전국에서 모여온 신부 수녀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주재하시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본 교구장이신 김주교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나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지켜 나가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시오(디모테오 후서 3:12~4:2)”라는 성서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가 처해진 현실에 대해 오로지 복음정신에 입각한 냉정한 판단아래 인내심을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하자고 격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성직자 수도자, 자신들의 내적인 해신을 강조하시면서 이 시대에 참다운 그리스도 정신과 자세를 보이자고 촉구하셨다.

각 교구별로 정의평화 위원회의 활동보고와 현 시국에 대한 반응을 진단하고 합동토론회에서 앞으로의 교회의 태도와 방향 몇가지를 결정한 뒤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 결의하고 아쉬움과 함께 이번 세미나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귀가 했다.

정평 활동 후원을 위한 성금 모금

이 땅의 사회 정의 구현과 시국에 대처한 정평위 활동의 원활을 위해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값진 성금을 구합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각 본당 신부님이나 교구 정평위 또는 사무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요섭이 (362) 김병호

박신부님 갈비뼈 2개가 폭도들에게 맞아 부러졌는데...

빨리볼게할수 없을까?

산소용접소 옴지

갈비뼈를 산소용접을 해서 낫게 해주쇼

사진재료 및 기계 칼라필름 도산대

유 광 사

주 유 가에따노(영문)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후문 앞)
전화 ㉠ 4448 · ㉡ 2176

※ 전주역 앞

범 모 약 국

전화 3-5319

김 영 춘(아오스딩)

<수시 접수>
매월 1일 개강!
주 산 · 타 자 <주 · 야간>

- 넓고 시원한 강의실
- 원장 선생 직접 지도
- 유치반(6세) 개설

김제읍 요촌리 156-15
(고속버스터미널 앞)

관인 김제 제일 경리 학원
원장 김유근(요한) ☎ 2953

◎ 건강 관리 센터 ◎

영 진 약 국

—조계약 전문

김 을 태(베드로)

(시내버스 승차장)

전주 육교옆 중앙 시장봉
(전화 ㉠ 4577, 5789)

◎ 마인드 콘트롤
강좌 안내

일 시 : 8. 8. 10(일)~8. 21
(12일간)

오전반 : 9시 30분

오후반 : 6시 30분

장 소 : 전주 가톨릭센터

강 사 : 김중배(말시아노)선생

무료 공개 강의 : 8. 10~11
(2일간)

연락처 : 가톨릭센터

전화 ㉠ 3498 · 7127번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시 보 당 금 방

(금 · 은 · 보석 · 자국 시계)
주 이 창 수(바오로)

전주 남문 옆

전화 ㉠ 8188 (자 ㉡0369)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중·고등학생 연합회 임원 동문회...7월 17일<목> 오후 1시
가톨릭 센터에서, 참가비 1인당-1,000원
※ 역대 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십시오
2. 군옥지구 울뜨레아...13일<일> 오후 2시, 오룡동 성당에서
□ 문학강좌 안내...7월 19일<토> 오후 7시 30분, 가톨릭 센터에서
강사-윤덕수(국민대 교수), 제목-한국 문학의 나아갈 길
- ◎ 박창신(베드로) 신부님 퇴원...신자분들의 많은 기도와 찾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김병구

1. 꾸리아: 오후 2시 강당
2. 특별강의: 예수의 최후 만찬과 교회의 만찬례
7월 16일<수> 오후 8시-성당
3. 영세자 가정방문 실시: 7월 5일 영세자
15·16·17일-오전 10시
4. 예비자 교리 시작: 8월 9일부터
5. 중학생회 임시총회: 7월 13일<일> 오후 2시
6. 중·고학생 교리: 7월 20~25일 오후 7시 30분~9시
7. 고등학생회 제 1차 월례회: 7월 13일<일> 오후 2시
8. 청년학랑단 정기총회: 13일 저녁미사 후, 강당
9. 쉼 지도자 모임: 13일 오후 6시
10. 대학생회: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11. 주일학교: 부모님들 어린이를 토요일 오후 3시 교리
와 미사에 꼭 꼭 보내주세요
12. 마리아뿌리 80 (초·중·고·대학생 및 성인)
일시-7월 26일<토> 12시~29일<화> 오후 2시
장소-충남 논산 쉼뜰 여중·고
분당 보조 있습니다. 참가하실분들 신부님께 신청
13. 영세자 감사헌금: 육사순·박경희
□ 지난주 봉헌금: 460, 235원

(노충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중열
사도 회장 박춘근

1. 성령세미나: 내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오후 2시~
4시까지, 14일 오후 1시30분까지 사무실로 나오세요
2. 남·여 청년피절: 17일 오전 9시30분~오후 9시까지
현재 47명이 접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분당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에
5. 설사 강의: 매주(월·화) 저녁 8시~9시
6. 금주의 성경읽기: 구약의-에즈라, 느헤미야, 에스델
7. 아파트구역 특전미사: 매주<토> 오후 8시
삼흥목욕탕 2층에서
주일학교 교리시간-매주<토> 오후 3시
8. 아파트구역, 레지오 마리아: 매주<목> 오후 2시
17동 104호에서
□ 지난주 봉헌금: 207, 555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조정열
사도 회장 양상열

1. 사도회 월례회의: 미사후(회의실)
구역장님, 반장님, 공소회장님 사도회임원님들 참석
2. 하기수련회: 40세미만 전신자 대상, 악동 제외
장소-순창군 적성명 구미천 계곡(2락 3일)
회비-중·고생(3,000원), 대학생 및 일반(5,000원)
반석회원(10,000원)
3. 새로 나오신 분은 교적을 사무실에서 확인하세요
전영순(유스티나), 구춘희(수산나), 강순이(헤레나)
4. 장육자(헤레나) 이상 4세대 교우
5. 봉헌봉투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세요, 미수가 많습니다
6. 예비자교리: 매주일 공식미사 후 11시~12시
(조선부님 지도)
7. 6월말 결산보고: 총세입-6,731,122원
총지출-6,410,343원, 잔액-320,779원
□ 지난주 봉헌금: 265,03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법영배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최용구·서용현)
2. 봉헌금(교무금) 미수가 없도록 납부바랍니다

- 봉투에 미수액을 기재하였으니 완납 바람
3. 어머니 성가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성가연습
이 있으니 어머니들 나와서 배움시다
 4. 대학생미사 및 회합: 매주일 저녁 8시미사,
회합-미사전
 5. 미사시간 엄수: 미사 10분전에 와서 준비 바람
□ 지난주 봉헌금: 286,900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철수

1. 반장님 월례회: 공식미사 후(사무실)
2. 할머니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강당에서)
3. 중·고생 하기 수련회: 7월 28일~31일까지(서도)
※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신청하시기 바람
4. 성가연습: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30분
5. 학생회(중·고생) 각 쉼지도자 및 쉼 간부모임
19일 학생미사 후 강당에서(필기도구, 쉼 명단지참)
6. 형제회: 공식미사 후
7.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 한형수 ② 조동근, 신자들의 기도-김낙균
□ 지난주 봉헌금: 156,910원 교무금: 6,00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숲정이 유치원 여름방학식: 7월 15일
2. 대학생 지역대회: 7월 16일
3. 분당 청년회 월례회: 7월 19일 오후 8시
4. 성모회 월례회: 7월 20일 공식미사 후
5. 신축기금 내주신 분: 김귀권(10만원), 이달리아(4천
원), 성모회원 일동(39,225원), 홍정례(1만원), 김
양순(2만5천원), 송정원(5만원), 오창석(5천원), 노
준명(5만원)
□ 지난주 봉헌금: 223,08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기
보좌 신부 김유석
사도 회장 유석

1. 자모회: 공식미사 후
2. 장우회: 저녁미사 후
3. 성화회: 공식미사 후, 장소-신리다리
4. 저금통을 빨리 내주세요
5. 대학생 모임: 목요일 오후 5시, 장소-사제관 2층
6. 매주 월요일은 사무실이 휴무입니다
신자들의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7. 오늘 전례담당
아침미사: 사회-이진홍, 독서-① 최병래 ②박종구
공식미사: 사회-서정옥, 독서-① 김병오 ②박순기
저녁미사: 사회-김윤주, 독서-① 경양수 ②이진홍
□ 지난주 봉헌금: 373,405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채수현

1. 꾸리아회: 오늘 오후 1시 30분
2. 레문도 수녀님 연례피절 가십니다
수녀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예비자 교리: 8월 3일부터 있습니다
4. 성모회 월례회: 23일 있습니다
5. 수녀원 건축추진 준비위원들 19일 토요일 밤에 전원
소집합니다
추진 준비위원-채수현 회장님·이교성·김용무·이
마리아·전골롬바
위원들 수고하셨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1,740원 어린이헌금: 1,805원
교무금: 135,000원